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3호 [루게 제24656호] 주체103(2014)년 8월 31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10월 8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
보기, 표준으로 훌륭
히 일떠선 10월 8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
였다.

황병서 동지, 한광
상 동지, 홍영철 동지,
김정관 동지가 동행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
들과 공장직공들의
일꾼들이 맞이하시
였다.

지난해 10월 공
장을 찾으시고 몸소 기
업소의 이름도 지어주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서는 이미 있던 모든
건물들을 통채로 들어
내고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
게 완전히 일신시키
시킴으로써 인민군
대의 강력한 건설력
량을 과감히 보여주
시였으며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
님의 원대한 구상을
현실로 펼쳐갈 불
타는 열의를 안고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날마다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온 군대와 인민
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방대한
10월 8일 공장
건설이 불과 10
개월 사이에
완공되는 자
랑찬 성과를
이룩하시
였다.



설계의 요구대로
모든 생산건물과 문
화후생시설들을 최
상의 수준에서 일떠
세웠을 뿐 아니라
흡입음압이 없
이 내외부시공을
잘함으로써 우리
나라 산업건설에서
새로운 도약이 일
어났다고 기뻐하시
였다.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
고 최첨단 설비
비율도 그치지
않고 갖추어놓
았으며 지열에
의한 냉난방체
계를 도입한 결
과로 기업소가
정보화, 수자
화 된 공장, 에
너지 절약형 공
장으로 되었다
고 말씀하시
였다.

현대적인 문화
회관과 체육관,
종합적인 편의
봉사시설들, 호
텔 같은 노동자
합숙 등도 손
색없이 건설하
였으며 공장의
얼굴이 살아나
게 야외 휴식
터들과 운동시
설들도 특색있
게 꾸몄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는 10월
8일 공장은
부강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공장앞
에 나서
는 과업을
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
님께서는 장관을
이룬 공장의 전
경을 바라보시
며 그 어디를
들러보아도
지난해에 보
았던 모습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다고, 공
장이 아니
라 수림화,
원림화, 공
원화가 실현
된

휴양소라고,
로동계급의
문화가 활
짝 꽃피고
일터라고
하시면서
대만족을
표시하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
님께서는 정말
멋있다고,
결만 보고서
도 마음이
흥그러워
진

다고 하시
면서 새로
건설된 10
월 8일 공
장은 군민
대단결이
낳은 자
랑스러운
결실이고,
변이 나는
세상에
또 하나의
자랑할만
한 변이 일
어났고,
이것이
바로 천
지개벽이
요라고 외
우시며 환
하게 웃
으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
님께서는
중업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돋움
시켜
말겨진
생산
계획을
지표별
로 넘
쳐 수
행하
기 위
한 사
업, 생
산품
에 대
한 검
사체
계를
바로
세우
는 것
을 비
롯하
여 제
품의
질을
철저
히 담
보하
기 위
한 사
업, 편
판단
위도
에서
생
산에
필요
한 원
자재
와 협
동품
들을
제
때에
보장
해 주
기 위
한 사
업을
짜고
들어
야 한
다고
지시
하시
였다.

공장의
일꾼들
과 중
업원
들은
제품
생산
을 다
그치
고 로
동행
정규
율을
강화
하며
조국
애, 공
장애
를 높
이 발
휘하
여 설
비들
을 애
호관
리하
고 공
장의
안
락을
자기
집
처럼
알
뜰히
거
두고
깨
끗이
관
리하
여야
한
다고
강조
하시
였다.

일하
면서
배
우
데
대
한
위
대
한
수
령
님
과
위
대
한
장
군
님
의
말
씀
을
철
저
히
관
찰
하
여
중
업
원
들
의
과
학
기
술
수
준
을
부
단
히
높
이
로
써
로
동
계
급
의
인
테
리
화
를
실
현
할
데
대
한
당
의
방
침
관
철
을
서
야
한
다
고
말
씀
하
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
님께서는 공
장을
들
어
보
니
대
단
히
기
뻐
다
고
하
시
며
공
장
건
설
을
통
하
여
군
민
대
단
결
의
위
력
이
만
이
세
상
못
해
날
일
이
없
다
는
것
이
다
시
금
실
증
되
였
다
고
금
지
에
넘
쳐
말
씀
하
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
님께서는 인
민군
인
들
의
투
쟁
모
습
에
서
혁
명
적
인
정
신
에
대
해
심
장
으로
절
감
했
다
는
공
장
일
꾼
들
의
보
고
를
들
어
시
고
당
의
사
상
관
철
전,
당
정
책
옹
위
전
의
기
수
로
서
의
본
분
을
다
하
고
있
는
인
민
군
대
에
일
감
을
말
길
재
미
가
있
다
고,
인
민
군
대
가
세
인
을
늘
려
우
는
기
적
을
또
한
번
창
조
하
였
다
고
높
이
평
가
하
시
였다.



경애하는 원수
님께서는 10
월 8일 공
장을 우리
나라 산업
시설을 당
당히 대표
할수 있는
공장, 지식
경제 시대
와 사회
주의 문
명국의
체모에
어울
리는
공
장,
세
상
에
내
놓
고
자
랑
할
데
만
공
장
으로
전
변
시
키
자
고
하
였
는
데
건
설
자
들
이
당
중
앙
의
구
상
을
빛
나
게
관
철
하
였
다
고
높
이
평
가
하
시
였다.

우리 당의
건축
미학사
상이
반영
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나라 산업시설의 본보기, 표준으로 훌륭히 일떠선 10월 8일 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시대를 선도하는 인민군대가 이런 희한한 광경들을 하나하나 펼쳐가면 사회주의조국은 나날이 달라질 것이며 인민들은 날로 변모되고 흥해가는 조국의 모습을 보면서 긍지와 자부심, 애국의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10월 8일 공장이 당의 의도에 맞게 완전 무결하게 일떠섰다고 거듭 만족하시면서 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제593대련합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제462군부대의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에게 감사를 주시였으며 근로자들에게 높은 국가표창을 수여하도록 할것을 진히 제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 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 리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0월 8일 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노동자들의 궁전으로 일떠세워주시였으며 또다시 일터를 찾아주시고 대해 같은 은덕과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기어이 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이 들 처 럼 최 첨 단 을 돌 파 하 며 세 계 를 앞 서 나 가 자

조 선 천 연 후 연 개 발 교 류 사 일 군 들 과 과 학 자 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단의 품속에서 키워온 창조적พลัง과 지혜와 재능을 가장 높이 펼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의 최첨단과학기술을 높이 받들고 박사 조일숙동무를 비롯한 조선천연후연개발교류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줄기찬 투쟁을 벌려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후연을 가지고 후연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고 국제적경쟁력을 가진 천연후연제품을 마음껏 내다 팔고 생산하여 경제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에국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최첨단의 봉우리를 단번에약으로 뛰어넘어 후연공업의 새로운 경기를 개척한 이들의 혁혁한 성과를 경제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지금까지 이들이 만들어낸 천연후연술이 인민경제 주요부문에 배수입만큼이나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놓고서도 이들이 국가에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주었는가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자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질이 좋은 천연후연술을 연구개발하여 수많은 단위들에 도입한 과학자들의 위훈에 대하여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그는 재능을 꽃피워주고 싶은 삶을 얻어준 그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주체적인 후연공업건설에 이바지하는것을 자기한생의 목표로 정하였다.

가정부인의 몸으로 연구사업에 전념한다는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조일숙동무는 언제 한번 나약한 소리를 한적이 없었고 현장에서 침식하달일이 하면서 이악하게 탐구의 날과 달을 이어갔다.

자로서 스승의 손길아래서 그는 고심어린 탐구를 거듭하면서 두가지 난문제였던 순도와 점결제제를 해결하고 천연후연술을 낮은 온도에서도 짧은 시간에 생산할수 있게 하여 평양화학발전연구소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나 한때 조일숙동무는 여러 가지 고충으로 하여 연구기지를 떠나게 되었다.

정신적면민이 말할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묵묵히 과학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누가 뭐라고 하는 당과 수령에 충직하려는 과학자로서의 참된 양심을 지니고 조일숙동무는 낮에 밤을 이어 연구사업에 몰두하였다.

말 못하는 그의 마음속고충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끝까지 당을 따르려는 평범한 과학자의 깨끗한 양심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가 과학연구사업을 다시 할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셨다.

파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 지름길을 열어주는 최상의 강의와 같았다.

조일숙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으로 너로한 나이되었지만 바가 오나 눈이 오나 아랑곳없이 북창화학발전연구소, 대안중기계원연구소, 김중대전기판차련연구소, 서평양기판차련을 비롯하여 여러 단위들에 나가 수백개의 천연후연술을 설치하고 전압, 전류상태를 측정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과학자들은 서로 다른 속도조종에서 술의 마모상태와 수명을 관찰한것을 비롯하여 술의 전압강하, 정류 특성, 술불꽃상태, 정류자 및 미그로리마 등 운영지표들에 한해서 드디어 국제시험규격과 국규에 도달한 자료들을 얻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심장들이 안아온 자랑한 열매였다.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거머쥔 세계패권을!

을 얻어내지 못하면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투였다.

남들이 다 인조후연술을 해도 우리는 우리의 무진장한 천연후연술을 일떠세우려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도 천연후연술개발기술에서 패권을 쥘수 있는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기치였다.

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승이었던 력도산선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때로부터 이번 방문이 30번째가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나라들사이의 교류는 체육과 문화 등 여러 분야의 교류를 통하여 융되고 발전하게 된다는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이번엔 열리는 국제적인 경기대회를 계기로 오랜 기간 단겨져있던 일조관계의 문이 열리고 두 나라가 《가깝고도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먼저 이노기 간지리사장이 발언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이번 평양국제프로레슬링경기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되었다

애국으로 심장이 불탈 때

수십년전 김일성총장대학 물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인민대학습당에서 번역원으로 일하고있던 조일숙동무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나라의 쇠들을 가지고 직접 제강을 할수 있을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고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올해 우리 나라에 혼한 후연으로는 해질 못하는가.

우리 나라의 후연매장량이 세계적 천연후연매장량과 맞먹는 거대한 양이라는것을 생각해내서 제것을 두고도 남의것을 사다 써야 하니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때부터 조일숙동무는 누가 시킨 사람도 없었지만 우리 나라에 혼한 천연후연을 광범하게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기 위해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평양화학발전연구소에 나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 그는 우리 나라에 혼한 재료를 가지고 천연후연점결제제를 해결할수 있는 착상을 하게 되었다.

그나 한때 조일숙동무는 여러 가지 고충으로 하여 연구기지를 떠나게 되었다.

정신적면민이 말할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묵묵히 과학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심장들이 안아온 자랑한 열매였다.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거머쥔 세계패권을!

을 얻어내지 못하면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투였다.

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승이었던 력도산선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때로부터 이번 방문이 30번째가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혁명전사들에게 베풀어주신 뜨거운 은정

김일성상계관인인 김일성고급 당 학교 명예 교수 조순조와 김정일상계관인인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이비인후 및 두경부의 과외전문병원 원장 후천외사 교수 박사 공훈의사 차원현이 여든번째 생일을, 중구역 서문동 최학숙이 일흔번째 생일을 맞이하였다.

혁명전사들의 삶을 끝없이 빛 내어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께서는 이들에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해방전 기간한 로동자의 딸로 태어난 조순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어엿한 일군으로 성장하였으며 어버이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아래서 김일성고급당 학교 강파장으로, 교수 박사로서의 높은 삶을 누려왔다.

그나 한때 조일숙동무는 여러 가지 고충으로 하여 연구기지를 떠나게 되었다.

정신적면민이 말할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오직 위대한 장군님만을 믿고 묵묵히 과학 연구사업을 중단없이 밀고나갔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심장들이 안아온 자랑한 열매였다.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거머쥔 세계패권을!

을 얻어내지 못하면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투였다.

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승이었던 력도산선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때로부터 이번 방문이 30번째가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선군절격추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 폐막

전국로동자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선군절 54회에 즈음하여 진행된 이번 체육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은 평시에 번마한 높은 기술과 강한 투지, 고상한 도덕성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제40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성체육경기대회 폐막

제40차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성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평양시와 평성시, 사리원시에서 진행된 이번 경기대회에서 청소년학생들은 당의 체육강국건설공상을 높이 받들고 종목별전문화체육소화활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날에 번마한 자기들의 체육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심장들이 안아온 자랑한 열매였다.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거머쥔 세계패권을!

을 얻어내지 못하면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투였다.

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승이었던 력도산선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때로부터 이번 방문이 30번째가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독자의 권지

저는 수안군 통현리에 사는 특유영애군인입니다.

5년세월 저를 위해 변함없이 뜨거운 사랑과 정을 기울이고 있는 수안군당 일군들과 통현리 당 일군들을 비롯한 고마운 사람들을 자랑하고있어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인간사랑의 화원에서 삽니다

들과 식료품들, 새로 나오는 도서를 가지고 매달이 찾아오고 언젠가는 안해와 함께 별식을 마련해가지고와서 고무해준던 비서동지의 살뜰한 정이 저의 가슴에 흘러넘치고있습니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심장들이 안아온 자랑한 열매였다.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거머쥔 세계패권을!

을 얻어내지 못하면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투였다.

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승이었던 력도산선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때로부터 이번 방문이 30번째가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탈리아 여러 정당출신 국회의원대표단 귀국

이탈리아-조선친선의회그룹부 위원장인 안토니오 라제 이탈리아

오. 마슈바트 톨몰 대외관계 상 고문과 일행이 30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외부성 일군

몽골 대외관계상 고문일행 귀국

과 주요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심장들이 안아온 자랑한 열매였다.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거머쥔 세계패권을!

을 얻어내지 못하면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투였다.

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승이었던 력도산선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때로부터 이번 방문이 30번째가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평양국제프로레슬링경기대회 개막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 체육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평양국제프로레슬링경기대회가 30일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개막되었다.

평양국제프로레슬링경기대회 제 1 일 경기 진행

유식시간에 펼쳐진 일본 아이기도선수들과 우리 나라 태권도 선수들의 모범출연은 경기대회를 빛내주는 역할을 하였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이려는 애국의 심장들이 안아온 자랑한 열매였다.

최첨단들의 기상으로 거머쥔 세계패권을!

을 얻어내지 못하면 리용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말그대로 치열한 전투였다.

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승이었던 력도산선생과의 인연으로 1994년에 처음으로 조선을 방문한 때로부터 이번 방문이 30번째가 되는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이러한 플등으로 이어진 공연은 개막분위기를 한층 돋구어주었다.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경쾌한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는 속에 이번 경기대회에 참가할 선수들이 입장하였다.



선군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선군절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에서는 경축모임이, 메히코에서는 토론회가, 페루에서는 우리나라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 영화감상회가, 에티오피아에서는 피담회(14일부터 19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영화감상회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상영되었다.

행사들은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 리사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8월 25일은 김정일각하께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긴 뜻깊은 날이다. 1960년 8월 25일 김정일각하께서 조선인민군 구위 서술류경수제105명사단을 현지지도하신것은 김일성주석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혁명령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그의 령도가 있었기에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 떨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전세계 진보적인류의 희망의 등대로 빛을 뿌리고있다.

조선인민의 최고 령도자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정일령도자의 선군혁명사상과 령도를 그대로 계승하시어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정지시켜 주신것을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선군절을 맞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

베루 페루리우 베우라시 교육 문화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형제적이며 친선적인 조선인민의 뜻깊은 명절을 맞으며 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수공예품전람회가 열릴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전람회가 베루인민으로 하여금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하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는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한다.

에티오피아 아바야구강병원 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위대한 선군혁명령도로 조선의 자주권과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커다란 대결전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 * *
선군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신문과 방송 특집

선군절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 신문과 캄보디아방송이 특집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 20일부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1960년 8월 25일을 선군절로 경축하고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선인민군을 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시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나라의 권력을 백방으로 다지심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군사적담보를 마련해놓으셨다. 또한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김정일령도자의 손길아래 정치사상적으로, 전략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향상된 조선인민군은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강국들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여왔다.

무장간첩 《후에블로》호사건, 《EC-121》대형항공기행각사건, 판문점사건 등이 보여주듯이 조선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에 대항하여 미국은 조선인민군을 무자비한 정벌을 면치 못하였다.

지난날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사변이었다고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밑에 조선은 미국의 핵공포에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기본정치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계적인 기적과 변혁을 안아 오신데 대하여 격찬하였다.

에티오피아 에티 오로미아주 설계감독사업소 관계대상책임자 등 발언자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조선은 군사강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강력한 군력에 대해서는 세계가 공인하고있다. 조선의 선군정치를 모든 나라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킬수 있었다.

미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군사적행동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특히 조선반도에서 침략전쟁을 계속 벌려놓고있는 조건에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는 가장 정당화되었다.

인디아주체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 최고 사령관의 선군령도

업적적론

선군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인디아에서 선군업적론회가 21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아다양성당 전국 도리사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지난 기간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 * *
선군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위아 진행

선군절에 즈음하여 인도네시아, 인디아에서 선군업적론회가 21일과 22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 아다양성당 전국 도리사회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토론했다.

김정일령도자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지난 기간 미국과의 첨예한 대결전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여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 * *
선군절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공동성명 발표

선군절에 즈음하여 스위스조 선위원회,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8월 25일을 선군절로 뜻깊게 경축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구위 서술류경수제105명사단에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어 조선인민군 구위 서술류경수제105명사단에 대한 헌전지도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적 무력건설위업과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어 지난 50여년간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무장장비미친나 정치지구위성제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는데 대해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세계무대에 우뚝 세우주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김정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선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떨치도록 하였다.

조선인민은 높은 민족적근거

공동성명 발표

선군절에 즈음하여 스위스조 선위원회, 스위스주제사상연구소가 1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은 8월 25일을 선군절로 뜻깊게 경축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구위 서술류경수제105명사단에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어 조선인민군 구위 서술류경수제105명사단에 대한 헌전지도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4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적 무력건설위업과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시어 지난 50여년간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무장장비미친나 정치지구위성제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는데 대해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세계무대에 우뚝 세우주시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뜻밖에 서거하신 후 김정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고 계신다.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이끄시어 조선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떨치도록 하였다.

조선인민은 높은 민족적근거

강도적론리는 통할수 없다

최근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전술로켓 미사일훈련에 매우 불만초조해하고있다. 어쨌든이들은 우리가 전술로켓미사일훈련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는것을 두고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하려는 저당도발》이라고 비난을 퍼붓고 있다.

로켓미사일훈련은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자위권을 행사하는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우리 전략군부대의 로켓미사일은 우리의 명공, 우리의 명예, 우리의 명도를 무대로 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진행된 정상적인 훈련이다.

자기 명도나 명에서 이런 훈련을 진행하는것은 세계적으로 보편현상으로 되고 있다.

이것이 문제로 될수 없으며 그에 대해 그 누구도 가려부러할것이 못된다.

일지도 않은 우리의 《도발》에 대하여 떠들어대는 미국에 진짜도발이 어떤것인가를 상사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조선전쟁이 미국의 도발적인 무력침공에 의해서 강행되었다는것은 구태여 더 열거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도발책동은 전쟁의 포성이 멎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언제 한번 중단된 적이 없었다. 미국은 지난 세계 60년대에 무장간첩선과 대형간첩비행기를 우리 공화국영해와 영공에 들이치는 군사적도발을 감행하였다. 70년대에 는 도기를 든 군사간첩들을 판문점에 내몰아 일종의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당시 정세를 전쟁정세로

물어간 도발자들에게 우리가 자위적조치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조선반도에서는 제2의 조선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핵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전쟁소동을 벌리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미국이야말로 진짜도발자이다.

미국이 올해에 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위해 남조선에 각종 핵전쟁병들을 들이밀고 《평양점령》을 노린 최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 불의적인 《군사분계선도발》훈련, 《북정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우리 수비부대를 노리는 특수작전훈련 등 광범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린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항 로발적인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그 때 이것이 우리 공화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불의의 선제타격을 노린 강도도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내외의 공정한 여론이 우리의 로켓미사기가 미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따른 자위권수호행위의 행동이라고 평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미사일훈련을 《도발》로 매도하고 강짜를 부리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결코 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더욱 높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해치기 위해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는 로켓미사일훈련을 무지막지하게 격고들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미국은 다른 목적도 추구하고있다. 얼마전

물어간 도발자들에게 우리가 자위적조치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조선반도에서는 제2의 조선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핵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전쟁소동을 벌리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미국이야말로 진짜도발자이다.

미국이 올해에 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위해 남조선에 각종 핵전쟁병들을 들이밀고 《평양점령》을 노린 최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 불의적인 《군사분계선도발》훈련, 《북정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우리 수비부대를 노리는 특수작전훈련 등 광범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린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항 로발적인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그 때 이것이 우리 공화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불의의 선제타격을 노린 강도도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내외의 공정한 여론이 우리의 로켓미사기가 미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따른 자위권수호행위의 행동이라고 평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미사일훈련을 《도발》로 매도하고 강짜를 부리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결코 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더욱 높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해치기 위해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는 로켓미사일훈련을 무지막지하게 격고들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미국은 다른 목적도 추구하고있다. 얼마전

물어간 도발자들에게 우리가 자위적조치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조선반도에서는 제2의 조선전쟁이 터졌을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핵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전쟁소동을 벌리면서 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미국이야말로 진짜도발자이다.

미국이 올해에 괴뢰들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위해 남조선에 각종 핵전쟁병들을 들이밀고 《평양점령》을 노린 최대규모의 연합사육훈련, 불의적인 《군사분계선도발》훈련, 《북정령후 행정단위복구》훈련, 우리 수비부대를 노리는 특수작전훈련 등 광범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린것 자체가 우리에게 대항 로발적인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그 때 이것이 우리 공화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불의의 선제타격을 노린 강도도발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내외의 공정한 여론이 우리의 로켓미사기가 미국이 벌려놓은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따른 자위권수호행위의 행동이라고 평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의 정상적인 로켓미사일훈련을 《도발》로 매도하고 강짜를 부리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결코 합동군사연습의 도수를 더욱 높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고 북침야망을 한사코 실현하려는것이다.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해치기 위해 하등의 문제도 되지 않는 로켓미사일훈련을 무지막지하게 격고들며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

미국은 다른 목적도 추구하고있다. 얼마전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미사일발사훈련 진행

로씨야 야스트라한주의 까부스엔 야스트라한에서 최근 중부군관구 반항공군부대의 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약 2 000명의 군인들과 700대의 기술기체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C-300대공미사일종합체와 《부크》, 《도프》, 《오세》대공미사일들의 발사가 있었으며 모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한다.

26일 중부군관구 공보부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국방공업성과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이 최근 나라에서 미사일발사 훈련을

미사일발사훈련 진행

로씨야 야스트라한주의 까부스엔 야스트라한에서 최근 중부군관구 반항공군부대의 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약 2 000명의 군인들과 700대의 기술기체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C-300대공미사일종합체와 《부크》, 《도프》, 《오세》대공미사일들의 발사가 있었으며 모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한다.

26일 중부군관구 공보부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국방공업성과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이 최근 나라에서 미사일발사 훈련을

미사일발사훈련 진행

로씨야 야스트라한주의 까부스엔 야스트라한에서 최근 중부군관구 반항공군부대의 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약 2 000명의 군인들과 700대의 기술기체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C-300대공미사일종합체와 《부크》, 《도프》, 《오세》대공미사일들의 발사가 있었으며 모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한다.

26일 중부군관구 공보부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국방공업성과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이 최근 나라에서 미사일발사 훈련을

미사일발사훈련 진행

로씨야 야스트라한주의 까부스엔 야스트라한에서 최근 중부군관구 반항공군부대의 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훈련에는 약 2 000명의 군인들과 700대의 기술기체들이 동원되었다.

훈련에서는 《C-300대공미사일종합체와 《부크》, 《도프》, 《오세》대공미사일들의 발사가 있었으며 모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소멸하였다고 한다.

26일 중부군관구 공보부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국방공업성과

이란국방 및 무력병참성이 최근 나라에서 미사일발사 훈련을

월간국제정세개관

8월의 국제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8월에도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달의 국제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못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사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한미도는 8월은 열전과 평전의 끊임없는 악순환속에서 흘러나갈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과 4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달에 남조선평화회담에 야합하여 《솔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유사시 조선전선의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괴뢰특해공군의 연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양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도 대량 투입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8월의 국제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8월에도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달의 국제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못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사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한미도는 8월은 열전과 평전의 끊임없는 악순환속에서 흘러나갈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과 4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달에 남조선평화회담에 야합하여 《솔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유사시 조선전선의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괴뢰특해공군의 연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양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도 대량 투입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8월의 국제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8월에도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달의 국제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못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사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한미도는 8월은 열전과 평전의 끊임없는 악순환속에서 흘러나갈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과 4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달에 남조선평화회담에 야합하여 《솔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유사시 조선전선의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괴뢰특해공군의 연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양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도 대량 투입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8월의 국제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8월에도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달의 국제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못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사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한미도는 8월은 열전과 평전의 끊임없는 악순환속에서 흘러나갈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과 4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달에 남조선평화회담에 야합하여 《솔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유사시 조선전선의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괴뢰특해공군의 연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양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도 대량 투입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영공침범행위를 강력히 규탄

이란의무성 대변인이 25일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공침범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란이 영공침범행위를 감행할 목적은 간첩투입을 위한 이란행공에 들어있는데 대해 가라하면서 그는 이것을 자기 나라의 주권과 명도완전에 대한 탄탄한 침해행위로 락인단죄하였다.

이란이슬람교혁명군위대

자 연 교 해

파괴말라에서 최근 극심한 가뭄피해를 겪고있다.

나라의 많은 지역에서 지난 2개월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말라죽고 20만명의 농민들이 기아에 직면하였다.

정부에서 17개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구제조치를 취하고있다.

방글라데슈에서 최근 폭우에 의한 큰물이 전국을 휩쓸고있다.

26일현재 수천명이 집을 잃고

미핵잠수함 일본에 기항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비행등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 미국 UPI통신은 미핵잠수함 《하와이호》가 일본의 요코스카미해군기지에 기항한대 해를 전했다.

한지에 나갔고 300여개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7만 4 000여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북부지역에서만도 4만여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작물이 못거게 되었다.

피해상황이 심각한 속에도 9월 까지 장마가 계속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미핵잠수함 일본에 기항

미군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대한 무력증강비행등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최근 미국 UPI통신은 미핵잠수함 《하와이호》가 일본의 요코스카미해군기지에 기항한대 해를 전했다.

한지에 나갔고 300여개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으며 7만 4 000여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북부지역에서만도 4만여ha의 농경지가 물에 잠겨 농작물이 못거게 되었다.

피해상황이 심각한 속에도 9월 까지 장마가 계속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현지에서 구제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8월의 국제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8월에도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달의 국제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못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사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한미도는 8월은 열전과 평전의 끊임없는 악순환속에서 흘러나갈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과 4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달에 남조선평화회담에 야합하여 《솔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유사시 조선전선의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괴뢰특해공군의 연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양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 민간업체들까지 총동원하였으며 핵타격수단을 포함한 여러가지 살인장비들도 대량 투입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8월에도 인류는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이달의 국제정세는 결코 평온하지 못했으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사태들이 적지 않게 일어났다.

한미도는 8월은 열전과 평전의 끊임없는 악순환속에서 흘러나갈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첨예하였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과 4월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콜》,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은 미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이달에 남조선평화회담에 야합하여 《솔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였다.

이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었다.

미국은 이번 연습기간에 유사시 조선전선의 투입할 미제침략군부대의 거의 모든 지휘소들과 괴뢰특해공군의 연대급이상 지휘기관들, 괴뢰들의 중양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군수,